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

심양

북경

서울

홀륭한 기생충 연구 사업의 현장을 가다

- 중국 방문기 -



허 선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심양 중국의과대학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다

서울에서 비행기가 뜬 후 1시간 50분만에 내린 심양의 하늘은 맑게 개이고, 햇살은 우리 나라 한여름처럼 따갑게 내리 쬐고 있었다. 시내에는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자전거 행렬이 줄을 이어 달리고, 자동차들은 재주껏 자전거를 피해 가고 있었다. 첫날밤을 이국의 도시에서의 새로움에 부풀은 체묵은 뒤, 심양의 중국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을 방문하였다.

공항에 마중나왔던 리 선생은 은퇴한 상태로 교실에 나오는 것이고, 현재 주임교수는 왕하이펑 선생이라는 약 50대의 남자 교수였다. 전임교원 4명과 조교 2명이 주폐포자충, 특소포자충 연구를 하고 있었다. 심양

주위에 간흡충 감염이 70% 되는 조선족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끌린다. 앞으로 교류도 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임한중 선생님의 제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집대시 “열렬한영 한국객인 방문”이라는 한문글을 칠판에 써 놓고 과일을 내놓은 모습에서 진심으로 반감을 알 수 있었다. 거리도 비행기 타면 서울에서 1시간 20분 정도이고, 연구 인력이 충분하기에 약간의 기본 장비만 더 갖추어 질 때, 한국 학자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기에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중국 장내 기생충관리 사업 현장인 농촌에 예비조사차 가다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은 한국건강관리협

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하에 실시할 예정인 “중국 장내 기생충관리사업”의 예비조사로 사업 대상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일상 생활 실정과 연구 여건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사업 지역은 안휘, 장시, 광시 세 성인데, 이번 여행에서는 광시성만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의 심양, 북경, 연길, 상해를 둘러 행정부, 연구소, 의과대학을 방문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열하루 동안의 여행으로, 동반한 방문객은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회장인신 임한중 교수, 성정웅 건협 사무총장, 정순표 건협 기획부장, 하성미 건협 부산지부 사무국장, 남서중 건협 경남지부 사무국장, 김점자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서기관, 그리고 글쓴이로 모두 7명이었다.

우리 국민과 같은 기생충질환이 유행하는 연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인 연길 시내에 있는 연변의학원 기생충교실을 방문하였다. 전임교원은 3명이고, 조교 선생도 한명 있다. 교실크기는 약 150평 정도이고, 실습실과 연구실이 있다. 이 지역은 조선족이 많으므로 식습관과 관련된 간흡충증, 유구낭미충증의 유행이 있다고 한다.

기생충병에 대한 치료는 다른 연구소에서 하고 기생충학자는 가끔 가서 자문을 한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간흡충증에 프라

지관텔과 알벤다졸을 동시에 쓴다는 것이다. 부작용을 줄인다고 하며 동시에 써서 선충까지 치료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거리 구경차 나갔다가 약국에 들러 보니 회충, 십이지장충 따위의 선충 감염 때 쓰는 알벤다졸은 있으나 프라지관텔은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 항생제는 카나마이신을 쓰고 있었고,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병의원의 처방에 대하여 약국에서는 잘 모르는 듯하다. 그리고 약국에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이른바 보약이 더 많았다.

중국 예방의학과학원의 놀라운 규모의 건강정보 수집

연길 다음에 방문한 북경의 예방의학 과학원은 8개의 연구소가 있어 연구와 정책 자문을 하고 있고, 기생충병 연구소도 그 중의 하나이다. 첸춘명 선생이 소개한 공중 예방 연구에는 4가지 분야가 있는데, 1) 조사사업, 2) 기술적 문제와 정책 결정 자문, 3) 표준화 기준을 개발하는 사업, 4) 정보 제공과 수집 사업이다. 가장 놀란 내용인 건강 정보 수집은 2,600개 현에서 1,000만명을 대상으로 155개의 항목으로 유병률과 사망률을 수집하고 있다. 우리가 국민대상 조사를 할 때 보통 1 : 1000의 비율로 표본 추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약 1 : 100의 표본추출이다.

성 단위까지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고, 한달에 한번씩 자료를 받아 정리하고



◀ 북경 예방의학과학원
첸춘밍 선생의 초대로 식사중.
왼쪽부터 성정웅 사무총장,
임한중 회장, 첸선생, 허선,
남서중 사무국장, 하성미
사무국장

국가의 보건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전산소 자료은행에는 산업질병과 환경에 의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 즉, 미국의 국립보건원, 질병관리원, 식품과 약품위생국이 통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단지 약품에 대한 검정만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 상해에 있는 기생충병 연구소도 예방의학과학원 산하 한개의 연구소이다.

임한중 교수, 명예교수직 받다

매우 기쁘고 인상적인 일은 과학원으로 부터, 동행하신 임한중 선생님께서 명예교수직을 받은 것이다.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역시 우리나라 기생충학 분야는 국내보다 국제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는 말이 맞음을 알 수 있다. 임선생님께서 이미 간흡충에 대한 연구로 대한민국 과학원 학술상을 받으셨고, 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업적을 남기시고 지금 우리나라 기생충학계를 국제적으로 대표하시는

분이기에 당연히 받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30년전의 우리 농촌 모습인 중국 농촌에서 인분으로 키우는 물고기

사업 예정 지역의 하나인 광시성 난닝시는 기후가 우리 나라와 같이 무더웠다. 첫 날에는 광시성 기생충병연구소에서 과거 사상충과 주혈흡충증을 퇴치한 내용을 비디오로 보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업비를 대주어 많은 일을 하였고 따라서 인력도 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메벤다졸을 카라멜로 만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개에 100원에 판다고 한다. 대변 검사 수가는 200~300원. 메벤다졸은 우리나라 보험가보다 4배 정도 비싸다. 어릴 때 산토닌을 카라멜로 먹은 기억이 난다.

바로 이어서 앞으로의 사업 지역인 난닝에서 한시간쯤 들어가는 우밍(Wuming)현에 가서 마을을 둘러 보았다. 우밍현 위생국 책임자가 승용차를 타고 길안내를 하였다. 마을은 농민사가 주었고, 특이하게 돼지번

이나 인분이 바로 넷물로 들어가고 그 넷물에는 물고기가 있어서 그것을 먹고 자라고 사람들은 다시 그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

간흡충 유행지역의 간암발생률도 높아

둘째날은 푸수이(Fusui)현을 방문하였다. 푸수이현의 위생국에서 토의가 있었다. 이 지역은 간암이 10만명당 72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으로 줄었으나 아직 간암의 유행률은 매우 높다. 이 지역의 간암의 원인으로 1) 실리콘이라는 원소가 음료수에 부족한 점, 2) 옥수수나 땅콩의 곰팡이에서 나오는 물질(aflatoxin?), 3) B형 비루수 감염, 4) 간흡충 감염 이렇게 네가지를 꼽고 있었다. 옥수수와 땅콩의 곰팡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1)번은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지역에도 간흡충 감염자가 있다고 한다. 특히 광서성 인구 3,800만명의 39%인 장족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이 있고 특히 손님에게는 별미로 대접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사람이 더 많이 먹어서 감염률도 도시에서 높아서 도시가 60%, 농촌이 30%라고 한다. 특히 술을 마시면서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와 같았다. 어린이들은 먹을 기회가 적어 감염률이 낮다고 한다.

뱀도 정력에 좋다고 날로 먹는다고 한다. 스파르가눔증 증례도 있는데 논문은 없다고 한다.

간암 중 간실질암인지, 간담관암인지 구별하느냐고 물었으나 지금 병리의사가 없어서 알 수 없다고 한다. 슬라이드도 병리의사가 없어서 보지 못하였다. B형 간염이 약 15%. 간암 환자 부검은 하지 않고, 단 수술로 적출한 표본은 난닝의 병원에 있다고 한다.

진단은 알파태아단백(alpha fetoprotein, 500원, 우리나라 금액으로), 컴퓨터 단층촬영(10,000원), 초음파검사(2,000원)로 한다. 간기능검사는 2,500원이라고 한다. 대변검사를 항상 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없었다. 일반 노동자의 한달 수입이 5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결코 낮은 수가가 아니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검사료이다.

치료는 초기에는 수술, 말기에는 화학요법이나 한약을 쓴다고 한다. 그러므로 간암 환자에게 대변검사와 그램당 총란수 검사를 반드시 하여 기록하고, 간암의 종류를 구별할 것을 임한중 선생님께서 권하였다. 방문한 지역은 농농사를 주로 하고 있고, 이 지역은 연못이 곳곳에 있으며 역시 연못 위에 공중변소가 있다.

장족과 마요족에 간흡충증, 폐흡충증 각각 유행

또한 그런 연못 수초에서 중국에서 간흡충의 제 1중간 숙주인 기수 우렁이속(*Assiminea sp.*)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는 폐류 동정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서성에 폐류학자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보내주면 전문가의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다음 한국 방문 때 혹 들고 올지 모르겠다.

민물고기 회를 먹는 모습을 식당에 가서 직접 구경할 수 있었다. 장족의 식습관은 한족과 매우 다르다. 한족은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없다. 아마 우리나라의 그러한 습관은 남방 문화의 유입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부 서남해안 지역에 있는 남방 문화를 보면 그러한 가정을 할 수 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도 조선족만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폐흡충과 다른 스크리아빈폐흡충 (*Paragonimus skrjabini*), 헤테로트레무스 폐흡충 (*P. heterotremus*)의 인체 감염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주로 산속에 사는 마오족 (苗族)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보니 평선생의 말대로 도시에 비해 100년 정도 떨어져 있다

고 생각되었지만, 우리나라의 옛 농촌을 되돌아 볼 때 50년대 말, 60년대 초 정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곳을 방문하니 옛날 어릴 때 시골에서 지내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 새로운 감회가 있었다. 잠시 행복하였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방문한 두 현 지역은 우리나라 기생충학자들이 일을 같이 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미생물학, 병리학, 내과학, 역학, 패류학, 보건경제학, 사회학 등 등 어느 분야의 연구자들이든지 같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좋은 자료를 뽑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학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심양의 중국외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방문.
 앞이 보이는 왼쪽부터
 성정웅 사무총장, 임한중
 회장, 허선 교수. 뒤가
 보이는 왼쪽부터 왕선생,
 리선생, 전복실 선생

이번에 방문한 우밍현, 푸수이현 지역은
우리나라 기생충학자들이 일을 같이 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미생물학,
병리학, 내과학, 역학, 패류학, 보건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에 참여하여 좋은 자료를
벌 수 있다면, 우리나라 학문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대 기생충학 분야 잡지 도 서관을 갖춘 상해기생충병 연구소

마지막 방문지인 상해 기생충병연구소에서 “중국기생충과 기생충병잡지(Chinese Journal of Parasites and Parasitic Diseases)”를 발행하고 있다. 기자제도 손색없이 갖추고 있고 연구 인력도 풍부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도서관으로 전세계 기생충 분야 잡지는 다 갖추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서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생충학잡지(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도 있었다. 중국 전국에서 요청하면 복사도 하여 보내준다고 한다. 상해를 뒤로 하고 귀향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확이 있다면 심양의 중국의과대학, 연변의 학원, 광서기생충병연구소와 우리나라 기생충학잡지를 그쪽 자료와 교환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와 현재의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현장에 접근할 때이다. 단지 우리의 연구, 사업의 현장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이러한 일의 값어치를 더 높일 것이다.

또한 건협직원의들과 같이 다니면서 옛 현장 경험도 듣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다. 끝으로 내게 중국 여행의 기회를 주신 임한중 선생님께 고맙기 그지 없다. 잘 도와주신 건협 직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한다. ㉔

맺는 말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현장이 있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적극 이 현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다른 수

